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정치학 교수

2019년 기해년 한 해를 보내면서 현 정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헌법정신과 법 철차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시세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부동산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헌법적 가치인 시장경제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는데 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금을 늘리는 대책 없이 수요만 잡겠다는 것은 반시장적이다. 기본권 침해 소지도 크다. 더구나 경제부총리 말 한마디로 갑자기 대출을 금지한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종교칼럼



임형준 순천 빛보타교회 담임목사

누가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고 하면 '인생은 여행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 우리는 2010년대의 여행을 마치고 곧 다가올 2020년대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던 삶과 다르게 살아가거나 포기나 체념을 반복하며 세상의 물결을 따라 세월을 흘러 버린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나의 인생이 아닌 타인의 인생에 불합치 살아간다는 문제의식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 여행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31세에 파산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선거에서 패했다. 34세에 다시 파산했고, 35세에는 첫사랑 여인을 땅에 묻어줬다. 44·46·48세에 각각 또 선거에서 패했다. 누가 보아도 한심한 사람이었다.

기고



원종원 순천현대 공연영상학과 교수·뮤지컬 평론가

조명이 꺼지자 무대에는 화려한 선과 색의 영상이 펼쳐진다. 능수능란한 줄꾼의 묘기와 한바탕 왁자한 마을 잔치가 탄성을 자아내더니, 와이어를 활용한 플라잉 특수 효과가 하늘을 가른다. 바닥이 꺼지고 벽이 줄리는 판타지들이 쉬지 않고 무대를 주름잡는다. 년버벌 퍼포먼스 '무사'의 시선을 압도하는 풍경들이다.

년버벌 퍼포먼스란 비언어극과 행위 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퍼포먼스가 결합된 공연 장르를 말한다. 말이 배제됐으니 국경이나 언어의 경계를 초월하는 장점이 있고,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예술적 체험은 비교하기 힘든 잔상을 남긴다.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의 실험극인 '블루 맨'이나 '스토프', 아르헨티나 암벽 등반가와 예술가들이 만든 '렐라 구아다' 혹은 '푸에르뜨푸르트' 등이 대표적인 글

국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른바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교육부는 지난 11월 7일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관으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된 사립학교 법인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끝내 폐지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국회 논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행령을 바꿔 서둘러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 독재'나 다름없다. 국가의 교육 정책은 정치적 중립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 현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회의가 이런 뜻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는 정부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과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구

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명백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19일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실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선 "한국 경제가 궤도를 상당히 이탈해 있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고 했다. 1%대 경제 성장률, 13개월째 수출감소세, 40대외 제조업 고용률 추락 등 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두고 '궤도 이탈'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가?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안정됐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규제 일변도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정하다. 한국리서치

·KBS의 여론조사(2019년 12월 5일~6일)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은 27%에 불과했다. 경제 현실을 놓고 대통령과 실무 부처가 따로 노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믿겠는가?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문재인 정부는 유독 올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드레일과도 같은 '법치와 제도적 자체'를 무시한 채 목적을 위해 수단이나 절차를 가법계 여기며 중요 현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정과 자유의 '춧불 민주주의'로 탄생했다. 현 정부의 정체성은 무너졌다. 심지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도덕적으로 파탄이 난 정부라는 비난마저 대두되고 있다. 한국 리서치의 12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3명 정도(36%)만이 우리나라 국정 방향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임기 중반을 넘긴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헌법 정신과 법 철차를 준수하고 실력을 쌓아 민생 경제를 살리며, 정직하게 국정에 임해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다가올 2020년대는 '자기 혁명'을 견지하자

그러나 그는 60세에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그는 계속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달려갔다. 결국 그의 인생 여행은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존경받는 위인이 되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어떤 어려움과 저항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식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게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고, 하기 싫어도 지금의 일을 해야만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대가로 자기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 즉 부역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링컨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2020년대 10년의 새로운 인생 여행이 곧 시작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현실에 눈치 보고 종살이 하듯 일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당당하게 하며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하며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현실에 굴복하며 비굴하게 타인의 인생 여행에 더부살이 하며 살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보고 심한 도리질이 일어나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도피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과 대면해야 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도 소리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의 신음에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노동의 대가로 얻은 물질, 흥진 생선처럼 눈치 보며 탐욕스럽게 먹는 살전 안고양이와 같다. 이런 자신과 싸워야 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성경에는 우리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말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 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1:6-8)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지향하는 내면이 있다는 것이다.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추구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삶을 살아가며 모든 일에 불완전함을 드러낸다. 그 욕망에 저항

하여 싸워야 한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단호한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이렇게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욕망으로 철갑이 되어 변화되지 않으려 저항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혁명을 일으켜서 빼앗겨 버린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자기 혁명에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스스로에게 위기를 설득시키는 것이다. 혁명의 성공은 위기의 강도를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번째 조건은 혁명을 생존의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과의 전면적인 생존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전면전은 확신을 필요로 한다. 이 혁명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놀라운 변화가 선물처럼 기다린다. 의식이 바뀌고 일상생활이 바뀌는 변화는 승리한 결과이다. 하루를 이해하는 방법이 바뀌고, 하루를 쓰는 방식이 바뀌는 큰 변화가 찾아온다. 하루라는 현실 속에서 행복한 꿈이 실현될 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승리의 확신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자유가 매일 반복될 것이다.

년버벌 퍼포먼스 '무사'를 보고

로벌 흥행작들이다.

대한민국 공연계에 첫 도전장을 내민 '무사'는 우선 규모나 볼거리에서 기존의 작품을 압도한다. 발달 모양으로 길고 시원스럽게 펼쳐진 열린 무대는 기존의 프로시니엄 아치 너머로 보던 공연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입체감을 선사한다. 아찔할 정도로 날카롭게 치솟은 경사면을 바라보면 어떻게 배우들의 등장과 퇴장이 전개될까 아리송해지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기우에 불과함을 깨닫게 된다. 하늘로 열리고 땅으로 꺼지는 무대 변환이 시종일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중으로 회전하는 '명성황후'의 턴테이블 무대나 단지동맹을 하는 울창한 자작나무숲이 등장하는 안중근 소제의 뮤지컬 '영웅'의 무대를 디자인했던 박동우 교수가 작심하고 만든 느낌이다. 왕성한 활동을 통해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선보인 정재진 영상 디자이너가 빛어낸 이미지들과 충돌하며 조화를 이루는 무대의 비주얼은 차라리 황홀하다.

시공을 초월하는 캐릭터들의 이미지도 흥미롭다. 역사극처럼 출발하지만, 이야기는 판타지를 품으며 전개된다. 고전소설 '박씨 부인전'에서 이미지를 차용한 천둥이나 낙뢰사도 흥미롭고, 그런 천둥을 호위하는 계화와 계월의 이미지

나 인간 영웅 이시백을 보좌하는 범총천과 흥대권의 모습도 마치 무협 영화 속 근사한 무사 캐릭터처럼 상상을 자극하는 재미를 선보인다. 해의 시공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둔 듯, 다양한 아시아권의 신화들을 활용한 아이디어도 흥미롭다. 중국의 대표적인 신화집인 '산해경'에서 모티브를 따온 마신 우사첨이나 울루가 대표적이다. 무속 신화 속 이미지들도 여럿 눈에 띄는데, 제주도의 무당굿인 '이공분풀이'에서 가져온 한라곡이나 '천지왕분풀이'에서 빌려온 수명장자 혹은 '차사분풀이'에서 차용해온 저승사자가 그런 사례들이다. 마치 '반지의 제왕'이나 '왕좌의 게임'을 떠올릴 만큼 다양한 신화 속 이미지들이 적절히 얹혀지고 격돌한다. 낮 놓고 바라보는 어린 관객들의 반짝이던 눈망울이 꽤나 인상적인 잔상을 남긴다.

17억여 원의 예산과 48명의 출연진, 총 100여 명에 달하는 제작진은 이 작품의 규모를 알려주는 외형적 수치들이다. 블록버스터 뮤지컬의 제작비가 수십억 원을 훌쩍 넘기는 요즘 공연계의 현실과 견주어보면 적은 예산에 다양한 시도가 돋보인 사례라 인정할 만하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우리도 도전하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일 것 같다.

초연이라는 눈에 띄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프롤로그 격인 내레이션이나 극의 초반 다소 복잡한 설정이 그렇다. 아무래도 기존의 역사나 잘 알려진 전설 대신, 마치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야기 배경을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직설적이고 불친절한 탓이다. 막과 막을 잇는 전환을 마치 게임 속 새로운 스테이지처럼 구성한 것도 마찬가지다. 게임이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흥미롭겠지만, 가족 단위의 중장년층 관객들에게 아무래도 낯선 풍경이다. 특히, 공연의 호흡이라든가 면을 감안하면 이야기 전개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공연을 이어가며 고민해 봐야 할 과제다.

'무사'의 가장 큰 미덕은 과감한 도전과 실험 정신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작금의 대한민국 공연계에서 절실한 목마름의 대상은 당연히 완성도도 높은 창작물의 등장이다. 소위 '킬러 콘텐츠' 발굴이다. '무사'의 행보가 박수받아 마땅한 가장 큰 이유다. '무사'의 성장판 아니라 제2, 제3의 '무사'를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오늘 만큼이나 내일이 금급하다. 그래도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심정은 아닐 것 같다. 응원과 격려의 기립 박수를 보낸다.

社說

진척 없는 지역 현안 새해엔 매듭 풀어야

올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과 도시철도 2호선 착공, 한전공대 유치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대형 사업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 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기는 지역 현안들도 많다.

우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짚을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광주·전남이 손잡고 해결해야 할 '상생 과제 1호'이지만 아직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광주 민간 공항의 무안 이전에 따라 군 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국방부가 무안·해남·신안 세 곳을 적정 후보지로 좁혔지만 해당 지역의 반발로 3년째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과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해를 넘기게 됐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올해 지역 건설 업체들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돼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키웠지만 모두 포기하면서 좌초됐다.

세밀 '사랑의 온도' 펴낼 꿀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도 광주·전남 지역의 세밀 온정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따르면 광주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43.5도를 기록했으며, 이날까지 23억 2800만 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억 2900만 원(10.9%) 증가한 액수다. 전남 사랑의 온도탑도 같은 날 40.1도(39억 5785만 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억 8837만 원(4.9%)이 늘었다.

광주 5개 구청에는 하루 평균 30여 건에 이르는 후원 문자가 이어지고 있다. 남구에 접수된 후원 물품·후원금 규모는 11월 말 기준 6억 1373만 원에 이른다. 남구는 12월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모금 규모(6억여 원)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구에 접수된 후원·기부금은 모두 6억 6600만 원으로 지난해 5억 9400만 원

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혁신공항 건설은 전남의 최대 현안이지만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도 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타'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지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결정하면서 환경 파괴 논란에 밀려 답보 상태다. 그러는 동안 혁신도 주민 4300여 명은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의 고형 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는 이해 당사자들이 시험 가동과 환경영향 조사 등 기본 원칙에 합의했지만 연료 교체 시 손실 보전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며칠 후엔 새해가 다가온다. 경자년 새해에는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 주민들이 지혜를 한데 모아 지역 현안 사업의 매듭을 풀고 상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을 넘어섰다. 서구(8억 5000여만 원)와 광산구(6억 4000여만 원)도 전년 대비 후원 기부금이 늘었다.

남구 월산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도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 48만 원을 남구에 기부했고, 서구 태권도장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성금 100만 원을 서구에 건넸다고 한다.

경기 부진 속에 '이영학 사건' 등의 여파로 이른바 '기부 포비아'라고 불릴 정도로 위축됐던 온정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십시일반 모인 온정의 손길은 할거운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메우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마음을 휘어잡았던 개인주의와 물욕을 내려놓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돌아보며 온기를 나누는 행렬에 동참해야 할 때다. 구세군 남비의 붉은 색갈채를 사랑의 온정으로 펴낼 꿀은 연 말연사가 되기를 바란다.

無等鼓

위성정당은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을 말한다. 이런 정당은 정당의 존재 이유인 '정권교체'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던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성정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선거법 개정, 망치와 노루발못뽑이 등 연장까지 등장하더니, 감금과 역살잡이 등 온갖 추태로 '동물국회'가 재현됐다. 이로 인해 여야 국회의

위성정당

1협이체는 논의 과정에서 '비례한국당'의 출현을 예상했다. 하지만 "차마 그런 꿈수까지 부리겠느냐"는 생각에서 언급을 자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당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창당을 적극 검토하자 더 이상 선거법 개정의 원안을 고수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비례한국당'의 위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내지 않고 불출마 의원들을 위성정당에 입당시킨다면, 그래서 위성정당이 비례투

표의 기호 2번이나 3번을 배정받으면, 그 파괴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랄듯 천신만고 끝에

가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엔 역풍이 불겠지만 결국 짐승구 통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4+1협이체'는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한 수정안을 낼 것 같지는 않다. 꼭 수 아닌 정수를, 제도 아닌 민심으로 승부하겠다는 거다. 총선일이 코앞인데 정치판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불확실한 혼돈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유재관 편집 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牧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곡(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지 역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경 지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체 육 부 220-0621 <FAX 222-0536> <FAX 222-0195>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